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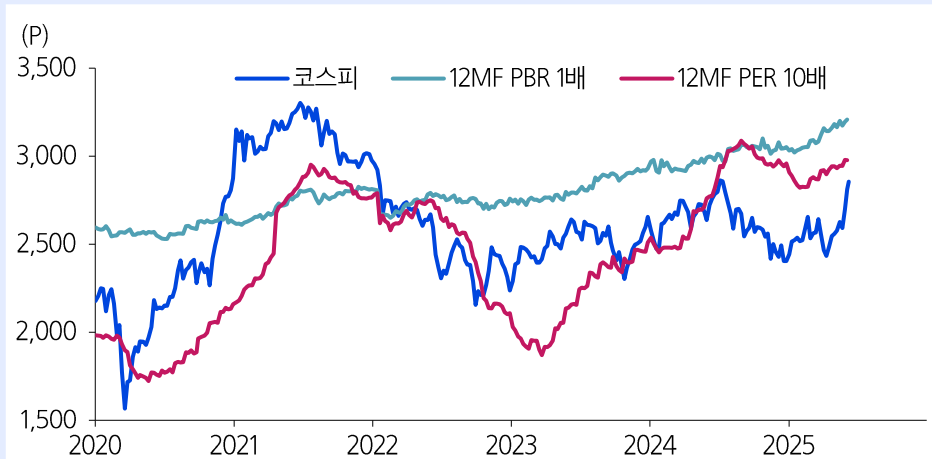
지금 **Hot한 종목**을 Kodex로 만나는 시간

삼성 Kodex ETFNow

01 | 이번주 HOT 국가 : **한국(코스피)**

코스피는 대선 이후 6개월간 지속됐던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IB가 단일 정부 출범으로 정책 추진력 확대가 전망되며 한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자, 코스피의 저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9.59배, 6/9), 12개월 선행 PBR(0.89배, 6/9)가 밸류에이션 정상화로 10배(2,980p)와 1배(3,210p)까지만 상승해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았다는 평가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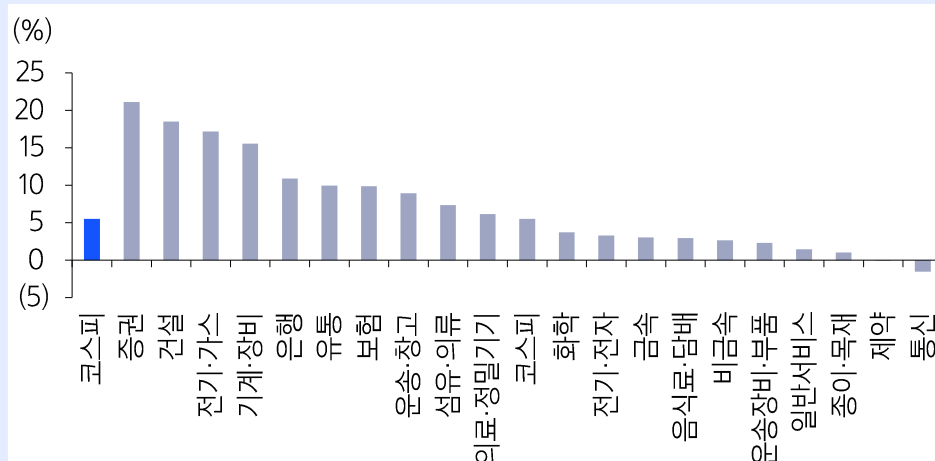
[그림 1] 코스피 추이



※ 자료 : Quantiwise, 삼성자산운용

5월 한 달간 코스피는 증권(+21.1%), 건설(+18.5%), 전기가스(+17.2%) 등 상승에 힘입어 5.5% 상승했다[그림 2]. 해당 업종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의 수혜가 예상됐던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선(6/3) 종료 후에도 관련 업종들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거대 여당 출범으로 정책 추진력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그림 2] 코스피 5월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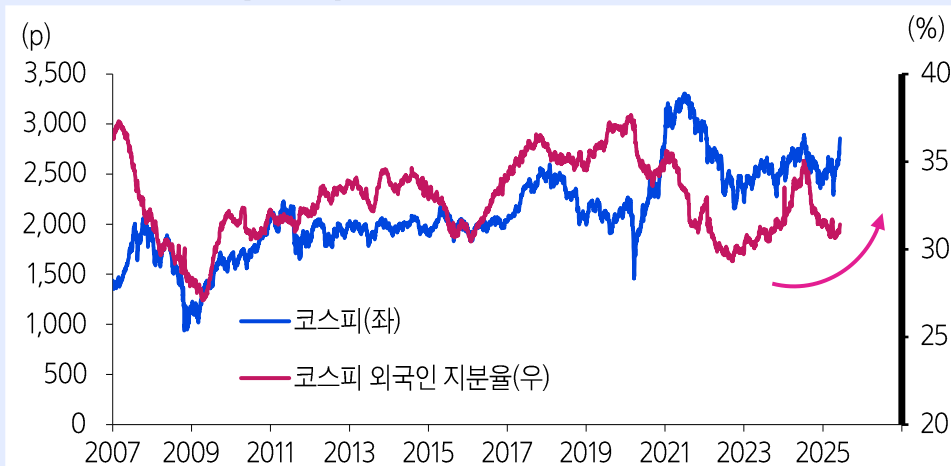


※ 자료 : Quantiwise, 삼성자산운용

02 | 외국인 수급 개선 + 이익 개선(수출 회복 + 경기 반등) = 코스피 호재 多

외국인은 연초 이후 5월 말까지 코스피를 (-)15.6조 원 순매도한 바 있는데, 글로벌 IB의 한국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과 하반기 내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6월 들어 4.7조 원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코스피의 외국인 지분율은 반등 중이다(6/2~10, Quantiwise)[그림 3]. 코스피는 외국인 영향력이 큰 증시인 만큼, 외국인 수급 환경 개선은 코스피 매력도를 높이는 유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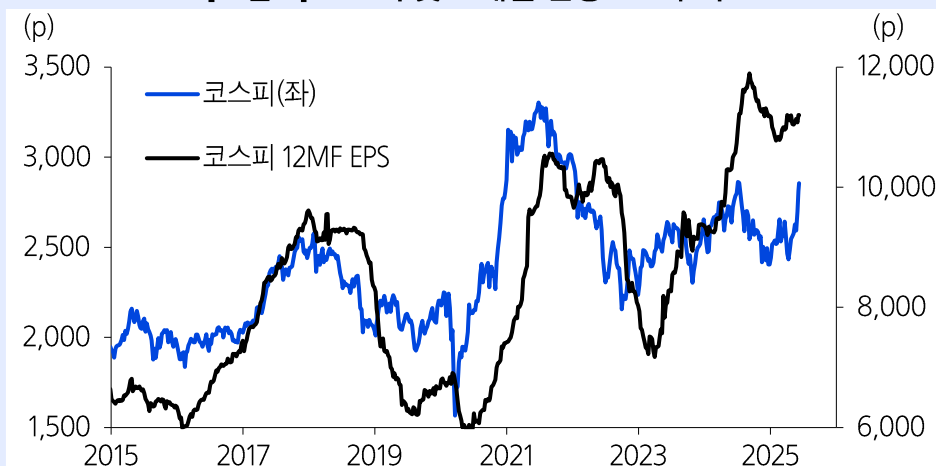
[그림 3] 코스피 및 외국인 지분율 추이



※ 자료 : Quantiwise, 삼성자산운용

한편, 국내 경기는 1분기 GDP가 전기 대비 (-) 0.2% 역성장 할 정도로 부진한 실정이다. 반면, 조업 일을 고려한 5월 일평균 수출은 전년비 +1.0% 증가한 26.6억 달러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수출과 내수의 점진적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코스피 이익 개선도 시차를 두고 다소 느리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 이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코스피의 추가 급등보다 숨고르기 이후 완만한 상승을 기본 가정으로 상정하는 게 타당하다[그림 4].

[그림 4] 코스피 및 12개월 선행 EPS 추이



※ 자료 : Quantiwise, 삼성자산운용

03 | 신정부 정책 수혜 Kodex ETF는?

498400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코스피 200 지수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위클리 콜옵션 매도를 통해 매월 분배금 추구

498410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

금융고배당 TOP 10 기업에 투자하며 동시에 위클리 콜옵션 매도를 통해 매월 분배금 추구

487240

Kodex AI전력핵심설비

글로벌 전력설비 공급난 속, 장기 호황이 기대되는 AI 전력 핵심설비 BIG 3에 집중 투자

※ 자료: 2025년 6월 10일 기준, 삼성자산운용

04 |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494800) 알아보기!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498400) 투자포인트



코스피 200 상승 참여 + 목표 분배율에 따른 타겟 위클리 옵션 매도 실시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솔루션: KOSPI200 배당금+KOSPI200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통한 월중 배당으로 꾸준한 현금흐름 추구



실속있는 비과세* 분배금: 국내 코스피 200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

*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세제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성 Kodex ETF
홈페이지 바로가기

★
탐픽 선정
이유

한국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에 금융, 지주사 등 특정 섹터 중심으로 상승. 코스피는 신정부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 우상향 할 것으로 전망.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추가 급등보다 완만한 상승을 가정하는 것이 타당. 탄력적 위클리 옵션 매도로 월배당을 추구하며 코스피 200 지수의 상승에 참여하는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투자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498400) 보유 종목 TOP5

구분

종목명

기업설명

보유비중

1

삼성전자
(005930)

HBM 반도체 부진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주가 저평가 되었으나 최근 반등 모색

22.2% ★

2

SK하이닉스
(000660)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 1위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세 지속

10.2%

3

KB금융
(105560)

금리하락, 자본 효율성 개선,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 따른 수혜 예상

2.8%

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

국내 방산 산업 성장 기대와 함께 좋은 실적 동반되며 긍정적 흐름 지속

2.4%

5

현대차
(012450)

최근 고부가 가치 차종 판매 호조와 북미 시장 실적 개선 흐름

2.1%

※ 자료: 2025년 6월 10일 기준, 삼성자산운용 ※ 상기 내용은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합성총보수·비용 및 총보수는 기준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및 ETF 거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총보수 연 0.39%(운용 0.359%, AP 0.001%, 신탁 0.02%, 사무 0.01%),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 *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 총보수 연 0.39%(운용 0.359%, AP 0.001%, 신탁 0.02%, 사무 0.01%),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 * Kodex AI전력핵심선택: 총보수 연 0.39%(운용 0.359%, AP 0.001%, 신탁 0.02%, 사무 0.01%),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료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전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는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연금저축계좌와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